

개혁주의 세계관의 관점에서 보는 성경적 리더십 이해 - 땅 정복명령의 목적을 중심으로

하성만 고신대 교양학부

I. 들어가는 글

땅 정복 명령의 목적은 하나님의 통치 완성을 이루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목적으로 하는 땅 정복 명령은 창세기 1장 28절에 잘 나타나 있다.¹⁾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신 복의 주된 내용이며, 다른 피조생물들에게 베푸신 복의 내용과도 확연히 구별되기에 매우 독특하며 특별하기까지 하다.²⁾ 땅 정복에 대한 명령은 문화명령 (culture mandate)이라고 불리는 다섯 가지 명령들 중의 네 번째 명령에 해당한다. 땅 정복 명령은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신 명령이었지만, 오늘날 날에도 여전히 지키고 계승해야 하는 유효한 명령이다.

땅 정복 명령의 중요성을 하나님 나라 완성의 관점으로 연구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이 땅 정복 명령은, 아브람에게 그 명령이 다시 주어짐으로써 연구의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더욱이 예수께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지 사십 여일 만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대 위임령(great commission, 마28:18-20; 막16:15)을 선포하신 사건은 땅 정복 명령에 대한 수행권한의 선포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재림하실 예수께서 온 땅을 온전히 정복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이라는 계시록의 기록(계22:12, 20; 행1:11)을 볼 때, 땅 정복 명령이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주제와 관련성이 있으며, 또한 명령의 목적과 관련한 일관성 있는 주제의 흐름을 엿볼 수 있다.

이 글은 땅 정복 명령의 목적으로 간주되는 ‘주 다스리심 (主治)’이라고 하는 주제를 성경적 세계관의 관점에서 조명함으로써, 성경적 리더십을 보다 명료하게 이해하고자 함이다. 이는 ‘다스리심’을 리더십으로 이해하려는 필자의 관점이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의 이해로부터 출발하였음을 증명하고자 함이다. 이 논문의 중요성과 기대 공헌은 땅 정복 명령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리더십 이해를 도모하고, 리더십의 시원(始原), 성경적 세계관 이해 등의 개념을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다룸으로 인하여, 성경적 리더십의 목적과 목표 그리고 그 범위와 한계 등을 성경적 세계관의 관점에서 설정함으로써 현대 리더십 주요 이론들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함이다. 이는 성경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땅 정복 명령’에 대한 일관성 있는 해석을 시도함으로써,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시도하는 데 있다. 즉, 개혁주의 신앙에서 바라보는

1) 창1: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 피조생물들에게 주신 복의 내용에는 세 가지 명령이 있는데, 그 내용은 창세기 1장 22절에 나타나 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이는 다섯째 날에 하신 일이었다. 즉 복의 첫 번째 대상은 피조생물들이었으며, 그 내용은 온 땅에 충만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에 비해 사람에게 주신 복의 내용에는 땅을 정복하고 그 피조생물들을 다스리게 하는 명령의 복이 더하여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성경적 세계관에 대한 이해를 ‘땅 정복 명령’의 관점에서 다룸으로써, ‘리더십’이라는 일반적 주제와 ‘성경적’이라고 하는 신앙의 주제를 하나로 통합하여 신앙과 학문의 일치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II. 성경적 리더십과 하나님의 형상

여기에서는 땅 정복 명령이 리더십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리더십의 어원 및 성경적 시원, 리더십의 구성요소와 정의 등을 다룸으로써 리더십이 성경의 전체 주제와 관련성이 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리더십이라는 주제를 ‘주 다스리심’이라는 성경 전체의 주제와의 상관성을 살피는 중요한 부분이다. ‘성경적’이라고 할 때 혹자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에게서 볼 수 있는 리더십을 성경적 리더십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 더러는 성경적 리더십이라고 하면 섬기는 것을 성경적 리더십이라고 쉽게 정의하려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두 경우 다 성경적 리더십으로 부르기에는 문제가 있다.

1 성경적 리더십의 토대

성경적 리더십이란 성경 전체 주제의 큰 흐름 위에서 있는 리더십을 지칭한다. 몇몇의 귀감이 되는 인물들의 리더십을 연구하는 분야가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한 섬기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십이라고 생각하여 서번트십(servantship)을 리더십이라고 우기는 것도 배제한다. 성경적 리더십이란 성경에 나타나는 리더십의 시원을 밝히며 리더십의 목적과 목표 등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따라서 리더십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리더십이 주는 의미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리더십의 어원이 되는 ‘리드(lead)’라는 영어 단어는 13세기 이전에는 사용된 적이 없는 단어이다. 그 때까지만 해도 영어 단어가 리더십이라는 용어 사용이 없었기 때문이다. 리더십(leadership)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19세기 초에 처음 등장하였고, 19세기 말에 가서야 리더십이란 ‘리더가 되기 위한 특성’이라는 표현이 처음 있었다. 리더십이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에 들어서였다. 이윤 추구의 목적을 가졌던 기업이나 조직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원했던 군대 조직과 같은 곳에서 실험이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주로 기업이 돈을 대고 군대 조직이 실험 대상이 되어 대학교의 교수들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조지메이슨대학(George Mason University)의 심리학 교수인 스티븐 자카로(Stephen Zaccaro) 등이 주도한 특성이론(Traits Approach), 로버트 카츠(Robert Katz)의 의해 주도된 기술이론(Skills Approach) 등은 리더의 특성과 그 특성에 따른 행동 등을 연구한 현대 리더십 이론들의 기초를 이루었다.³⁾ 이러한 리더십 연구는 1990년대 들어서 신학이나 목회학에도 영향을 미쳤다. 신학교도 리더십을 강조하는 시기를 맞이하였고, 교회 행정이나 운영도 리더십을 강조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3) 특성이론(Traits Approach)은 이탈리아계 미국인으로서 조지 메이슨 대학교(George Mason University)의 심리학 교수인 스티븐 자카로(Stephen J. Zaccaro) 등에 의하여 주도된 최초의 체계적인 리더십 연구 이론이었다. 또한 기술이론(Skills Approach)은 1955년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arvard Business Review)에 로버트 카츠(Robert Katz)가 “효과적인 행정기술(Skills of an Effective Administrator)”이라는 글을 올림으로써 유명세를 떨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계에서 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주된 연구영역에서 제외되어 왔다. 1990년대 초부터 리더십을 강조하던 미국의 비블리컬 신학교(Biblical Theological Seminary) 역시 리더십을 학교의 모토(moto)로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교과과정에서는 배제되어 왔다. 이러한 사정은 한국 상황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 교회에서는 리더십에 관한 관심이 커져 있지만 신학교에는 리더십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가 드물다. 기독교 대학교에서도 겨우 몇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만, 어디까지나 교양 선택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리더십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고 성경적 리더십이 무엇인가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리더십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먼저 리더십을 형성하고 있는 구성요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리더십의 교과서로 사용되다시피 하며, 현대 리더십 이론들을 총망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노스하우스(Peter G. Northouse)조차도 리더십을 정의하기가 어렵다고 고백하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리더십에 대한 정의가 50여 가지가 넘고 있음에서 그 어려움을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리더십은 어떤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을까를 생각해봄으로써 리더십을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리더십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무엇보다도 지정을 소유한 존재가 있어야 하며, 분명한 목표가 설정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하여 일정하게 나아가는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일정하게 나아가갈 때는 반드시 일정한 양식(style)이 형성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따라서 리더십이란 ‘지정을 소유하는 존재가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세워진 목표를 향하여,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 힘의 양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⁴⁾ 이러한 리더십에 대한 정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경적 리더십을 정의해 보자.

성경에서의 리더십은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첫 창조 때부터 이미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되, 그 안의 피조생물들을 창조하셨으며, 그들과 교통하셨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교통의 목적은 피조생물들을 친히 다스림으로써 모든 생태계의 질서와 피조세계의 질서들을 친히 유지 관리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만드신 피조세계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신 까닭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리더십은 첫 창조를 유지 보존하며 타락한 세상을 구속하시고자 하는 목표 성취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려는 목적에서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드러내시는 능력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경적 리더십이란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시발한 하나님의 리더십을 사람을 통하여,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을 목표로, 다양하고 일정하게 드러나게 하는 능력의 양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역사적 해석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관련 구절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부분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창조 기사에서 볼 수 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고, 땅을 정복하여 다스리게 하라’는 문화명령(culture mandate)은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된 첫 번째 명령이었다. 이 명령의 전후 관련구절들은 인간의 창조 목적을 기술한 본문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인간의 창조목적이라고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본래적 속성’을 설명하는 구절이라는 것만큼은 인정하지 않을 수

4) 하성만 (2012), “개혁주의 상호문화적 리더십: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개혁논총』. 24. 307.

없을 것이다.⁵⁾ 피조생물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으로 볼 수 있음은 창세기 1장 26절의 아래 기록에서 명료하게 나타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놓고 역사적으로 다양한 해석이 제시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해석할 때, 그 형상이라는 의미가 ‘참지식, 의, 거룩’ 등을 부분적으로 닮았다는 의미라고 진술했던 벨코프의 해석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Berkhof, 조직신학: 455). 이는 칼빈(John Calvin, 1509-1564)이 에베소서 2장 24절과 골로새서 3장 10절을 근거로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할 때 ‘참지식, 의, 거룩’ 등의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Calvin, 기독교강요I, 제15장: 290-296). 칼빈은 인간에게 주어진 형상의 좌소(座所)는 영혼이라고 말한다(Calvin, 298). 그 영혼이라고 하는 좌소에는 형상이 있는데 그 형상은 ‘참지식, 의, 거룩’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칼빈은 어거스틴(Aurelius Augustine of Hippo, 354-430)이 말하는 ‘형상’의 두 가지에 대해 다 배격하고 있다. 그 두 가지란, ‘오성(悟性)과 의지와 기억을 내포하는 영혼이 삼위일체의 반영’이라고 형상의 개념을 이해하였던 어거스틴을 반박하고 있다(Calvin, 296). 뿐만 아니라, 형상을 관계로만 이해하려는 사람들도 잘못된 해석이라고 논박한다. 이유는 인간이 만물의 상속자요 소유자로 정하여졌다는 이 특징이 세상이 인간만을 위하고 있다는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Ibid.). 칼빈은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하여 상실되었지만, 완전히 폐기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다(Calvin, 295).

인간의 형상이라고 하는 내면에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이 있으리라고 짐작하고 예단하는 현상의 시작은 초대 교부였던 로마제국 내 북아프리카 지역의 오리젠(Origen Adamantine, 185-254 AD)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해를 하나님이 지니고 있는 성품 혹은 특성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는 초대교부였던 오리젠의 해석을 따르는 또 하나의 견해일 뿐이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오리젠보다 앞서 아시아(지금의 소아시아)에서 성장하였고 후에 프랑스 남부 지방에서 활동하였던 이레니우스(Irenaeus, 125-202 AD)로 거슬러 올라가 발견된다. 엄밀히 말하면 아시아(소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하였던 사도요한과 또 그 사도요한의 후계자였던 폴리갑. 그리고 그 폴리갑의 학생이었던 이레니우스는 헬라 철학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았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초대 교회에 영향을 미쳤던 오리젠이나 이레니우스의 하나님의 속성 혹은 특성으로 이해하려는 해석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장 26-28절의 본문을 인간의 형상이 하나님의 의나 거룩을 부분적으로 닮았음을 보여주는 본문으로 보기에 해석에 무리가 있다. 창세기 1장 26절 어디에도 하나님의 의나 거룩을 언급하는 부분이 없으며, 유추할 만한 여지도 남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신약성경의 에베소서 4장 24절이나 골로새서 3장 10절 등에 언급된 본문은 인간이 가지고

5) 삼위 하나님께서 합의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기사는 창세기 1장 26절에 잘 나타나 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기록은 인간 창조의 목적이 피조생물들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라고 나타나 있음을 보여준다.

있는 속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은 되겠지만, 창세기 1장 26절의 본문과는 상관성이 없기 때문이다.⁶⁾ 오히려 창세기 1장 26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를 해석할 때, 관계의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즉 하나님께서 다스려 왔듯이 창조된 인간도 창조의 목적에 맞게 피조생물들을 ‘다스리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⁷⁾

이러한 해석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라는 두 번에 걸친 표현에서의 두 단어 사이에 차이점이 없다고 해석한 미국 칼빈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였던 후크마(Anthony Andrew Hoekma, 1913-1988)의 견해가 타당하다. 후크마는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의 구절을 해석할 때, ‘모양’과 ‘형상’이라는 두 단어의 의미해석에 있어서 차이점이 없음을 주장한다. 단순히 같은 내용을 유사한 단어를 교차 사용하여 반복할 뿐이라고 진술한다(Hoekema, 1986:13). 또한 화란의 자유대학교의 조직신학 교수였던 벨카우어(Gerrit Cornelis Berkouwer, 1903-1996)도 유사한 주장을 한다. 벨카우어는 두 단어가 뒤죽박죽 혼용되어 사용되었으며, 다만 한 단어가 다른 단어를 대체해서 사용된 것뿐이라고 일축한다(Berkouwer, 1984:69) 이러한 해석은 후크마나 벨카우어 등의 이전 세대로서, 미국의 화란 이민자들이 세운 칼빈신학교(Calvin Theological Seminary)의 조직신학 교수였으며 한국교회와 세계 많은 개척교회들이 사용하던 조직신학 교과서의 저자였던 벌코프(Louis Berkhof, 1873-1957)에게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칼빈신학교의 조직신학을 담당했던 교수들이 모두 하나같이 동일한 견해를 보여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벌코프보다 한 세대 앞선 열렬한 개혁주의 신봉자였던 인물로서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1837-1920)를 꼽을 수 있다. 그는 칼빈이 주창한 하나님의 주권 사상 실천화를 운동하였던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인물이었다. 화란의 목사 출신의 저널리스트요 국회의원이었으며, 다수당의 당수로서 국무총리를 역임하였고, 또한 최초의 기독교 종합대학교인 자유대학교(Free University)를 세웠으며, 신칼빈주의(Neo-Calvinism)를 탄생시켰던 인물이다. 하지만 카이퍼에게서도 ‘형상과 모양’ 두 단어들이 개념에 있어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카이퍼 시대의 쌍벽을 이루었던 헤르만 바빙크(Herman Bavink, 1854-1921)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바빙크는 화란의 칼빈신학교의 교의학 교수로서 카이퍼가 제안한 교수직을 받아들여 1902년부터 화란의 자유대학교의 신학 교수로 봉사하였다. 당대의 저명한 교의학 전공의 신학자였던 바빙크에게서도 이 두 단어 사이에 차이점은 발견할 수 없다. 후크마는 이러한 해석들에 대해 바빙크나 카이퍼가 두 단어 사이에 구별이 없다고 해석한 것은 분명 루터와 칼빈 때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한다(Berkouwer, 68).

형상과 모양에 대한 이해는 히브리 성경의 용례를 살펴볼 때 더욱 분명해진다. 형상(image)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켈렘(창1:26, 27; 5:3, 9:6; 신33:52, 삼상6:5; 삼상6:11, צֶלֶם)이라는 단어이며, 모양(likeness)으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데무트(창1:26; 5:1; 5:3; 왕하16:10; 대하4:3; 시편58:4, תּוֹמַר)라는 단어이다. 하지만 성경에는 이들 단어가 뚜렷한 구별 없이 각기 17회와 25회씩 혼용되어 교대적(交代的)으로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본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모양’은 하나님의 도덕적 특성을 따라 지음 받았다는 해석의 주장들이 창세기 1장 26-28절의 본문을 위한 적절한 해석으로서는 설득력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형상과 모양의 사용은 반복적 관용 표현

6) 엡4:24,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골3:10,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7) F. N. Lee, 『문화의 성장과정』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24.

에 불과하며, 이를 도덕적 특성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는 성경문맥의 해석 흐름을 불편하게 만든다. 오히려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기능적 특성을 인간이 그대로 닮았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스린다’라는 문화적 특성이 인간의 창조 단계에서 부여된 인간 고유의 본래적 속성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또 다른 난제는 하나님의 형상의 상실에 관한 문제이다. 과연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는 일반은총이라 불렀던 카이퍼의 관심에서 증폭되었다. 문화명령을 일반은총이라 하여 과연 비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까 하는 문제를 다루게 하기 때문이다.

아시아(Asia Minor)에서 태어나 주후 177년에 로마제국의 고을 지방의 록터님(Bishop of Lugdunum in Gaul)의 감독이 (Bishop) 된 이레니우스(Irenaeus, 130-200 AD)는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의 학생이었다. 그는 형상과 모양의 의미를 해석할 때,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타락할 때 하나님의 모양은 상실하였지만 형상은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모양’은 구속의 과정으로 회복되고 있음을 주장한다(Hoekema, 33). 이레니우스 이후 많은 신학자들이 같은 생각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생각이 중세 때까지 계속되다가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5-1274 AD) 때에 이르러 변화가 있었다. 아퀴나스는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의 이성 혹은 지성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형상은 모든 사람들에게 남아 있으나, 믿는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더욱 풍성하고 더 높게 나타난다고 생각하였다(Hoekema, 36). 하지만 이러한 아퀴나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지성이나 이성을 중시하는 그의 생각들은 성경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헬라철학으로부터 기인하였다고 후크마는 혹평하고 있다(Hoekema, 41).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칼빈(John Calvin, 1509-1564)은 골로새서 3장 10절과 에베소서 4장 24절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형상은 본래적으로 참지식(true knowledge), 의(righteousness), 그리고 거룩(holiness)를 포함하며 죄로 인하여 파괴되고, 부패되고 약화되었음을 말한다. 물론 이것이 폐기되어 상실되었다고는 하지 않는다(Hoekema, 42-45).

칼빈의 이러한 생각들은 이레니우스가 주장했던 것처럼 ‘형상’과 ‘모양’을 도덕적 개념 혹은 하나님의 속성 등으로 이해하려 한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창세기 1장 26-28절의 본문을 이해할 때, 첫 창조 때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다스리는 속성’을 따라 전폭적으로 위임된 것을 설명하는 본문으로는 보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의 의미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의 ‘속성’의 의미로 보았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형상과 모양의 개념을 동일한 의미의 유사 단어 반복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볼 때 분명히 이레니우스의 견해와는 구별된다. 형상의 의미를 좀 더 상술하기 위해서 모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을 것이라는 것과, 반복적인 수사법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이 칼빈의 주장이다. 중세기 기독교 신학의 거장인 아퀴나스가 초대 교부들의 헬라 철학적 개념을 계승 발전시켰다고 한다면, 종교개혁기의 거장 칼빈은 루터와 마찬가지로 형상과 모양의 개념을 동일하게 봄으로서, 이레니우스나 오리겐의 견해와는 다른 해석을 주장하고 있다.

인간이 범죄로 인해 타락한 후에,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었다고 믿고 있는 이들이 있으나 그에 대한 근거는 약하다. 인간의 타락 후에도 경건하지 않은 후손들 중에서도 여전히 목축업이나 예술업, 공예업의 조상이 될 만큼 문화적 업적을 남긴 증거들이 있기 때문이다.⁸⁾ 이는 타락 이전이나

8) 창세기 4장 20절에는 가인의 5대손 라멕은 두 아내가 있었는데, 그 첫째 아내 아다가 낳은 아들 야발은

타락 이후나 변하지 않는 인간의 속성으로 볼 수밖에 없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후의 성경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가인의 후예들이 목축업이나 예술업 혹은 금속 장인(匠人) 등의 조상이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인간 창조의 목적에 따라 인간은 생태적 속성이 그 무엇인가를 다스리도록 고안되어졌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부분적으로 닮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존재론적 관점에서 인간의 속성을 이해하려하기 때문이다. 마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이해하여 어떤 부분이 서로가 닮았는지를 확인하려는 모습과도 유사하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들은 창세기 1장 26절의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본문의 문맥과 관련된 연구 결과로서는 적절한 결과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을 드러낼 뿐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었던 이유는 ‘땅을 정복하고 그 안의 피조생물들을 다스리라’는 문화명령(Culture Mandate) 때문이다. 창세기 본문 1장 26절로부터 28절까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뜻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성이나 속성들을 인간과 공유한다라기 보다는,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인간 창조의 목적은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⁹⁾ 따라서 성경적 세계관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창세기 1장 26절 이하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중첩된 의미 사용에서 오는 동일한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속성을 따라 인간이 창조되었음을 보여주는 본문이다. 28절에 언급되는 삼위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 직후에, 인간에게 하시는 창조전의 삼위 하나님께서 합의하신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부터 볼 때, 분명 존재론적 속성을 설명하는 본문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서로 간의 합의의 내용을 창조된 인간에게 말씀하신 가장 기본적인 사명 활동을 명령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1:26-28).

짧고 간결하게 만들어진 다섯 가지 명령어로 구성된 말씀이다. 이는 인간 창조 직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스스로 삼위 간 합의하시고 약속하셨던 내용이며, 동일하게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된 인간에게 그 창조 목적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신 말씀이었다. 그리고 이 다섯 가지 단어의 명령어들은 최종적으로 내려진 마지막 명령어인 ‘다스리라’의 단어에 종속된다.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발원된 ‘다스림’의 리더십, 즉 세상을 향한 리더십으로,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인간에게 그 권한과 책임이 위임되어 창조질서를 유지하게 하신 것이다. 따라서 인간에게 부여된 ‘다스림’이라고 하는 세상을 향한 리더십은 창조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다.

III. 땅 정복 명령의 중요성과 개혁주의 세계관의 기초 이해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아우 유발은 수금과 통소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둘째 아내 쉴라가 낳은 아들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만든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였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아담이 셋째 아들이었던 셋을 낳기 전의 일이었다.

9) Gordon J. Wenham, *WORD BIBLICAL COMMENTARY: Genesis 1-15*, Colombia, Nelson Reference & Electronic, 1987), 27.

1. 땅 정복 명령의 중요성

땅이라는 용어는 영어성경(NASB)의 신구약에 걸쳐 모두 10,501회에 사용되었다. 사용된 용례는 12개의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등이 있으며, 영어 단어로는 모두 'earth'로 번역되었다. 이들 단어들을 분석해 보면, 많이 사용된 단어들로서는 구약에는 2,503회에 걸쳐 사용된 에레츠(창1:1, 10; 3:16, אֶרֶץ), 225회 사용된 아다마(창1:25; 2:7, אָדָמָה), 110회에 걸쳐 나타난 아파르(창2:7; 3:14, אֲפָרַיִם), 히브리어 에레츠에 상당하는 아람어 단어로서 21회 사용된 아라아(스5:11, 렘10:11, אֲרָא) 등이 있다. 신약에도 252회 사용된 게에이(마2:6, 20; 계12:16, γῆ, γῆς, ἡ) 등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용례에도 불구하고 단어 '땅(earth)'으로 번역된 원어들은, 단순히 그 사용된 횟수가 많다는 것 이상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성경의 첫 부분인 창세기의 천지창조(天地創造) 기사와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계시록의 신천신지(新天新地) 기사에 나타나는 땅에 대한 주제를 성경 전체의 흐름 선상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궁금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예수께서 초림 때 하신 사역이 이 땅을 회복하시고자 함이며, 재림하실 목적이 이 땅의 온전한 회복이라고 한다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땅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2. 개혁주의 세계관에서 이해하는 네 단계 역사

땅 정복 명령의 수행 권한에 대한 변화가 몇 단계에 걸쳐 나타난다. 첫째는 첫 창조의 단계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생성시키시고 지구와 그 위에 있는 모든 피조생물들을 만드시는 것을 마무리 할 무렵, 인간을 창조하셨다. 인간 창조는 피조생물들을 다스리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창1:26). 다스림의 기능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 시행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속해 있던 다스림의 기능이 창조된 인간에게 위임되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 나타난 세계의 변화 단계는 인간의 범죄로 야기되었다. 이 두 번째 단계를 신학적 용어로서 표기할 때 타락 단계로 부른다. 인간들끼리의 사랑과 협동심은 와해되고 반목과 질시가 만연한 것을 보여준다. 급기야는 하나님을 집단적으로 배반하고 인류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뭉치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바벨탑 사건이 나타난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가 타락하여 집단적 배교 현상이 일어날 무렵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만을 데리고 인류를 포함한 역사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셨다.

세 번째 나타나는 단계는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행하신 사역(work)을 계기로 심판과 회복이 현재적이면서 동시에 미래적으로 그리고 이중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단계이다. 이를 구속이라고 한다. 이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주고 샀다는 의미이다. 엄밀히 말하면 이는 구원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사용될 수 있는 용어이다. 예를 들면, 동물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를 놓고 답을 하라고 한다면 좀 망설여질 것이다. 왜냐하면 동물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놓고 고민이 되기 때문이다. 동물이나 짐승은 영혼이 없다고 믿고 있는데 구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구속이라는 단어는 거부감이 들지 않는다. 동물이 구속받을 수 있는가? 당연히 그 대답은 예(Yes)이다.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를 포괄하며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개혁주의 세계관에서 보여주는 역사 단계는 세단계로서 말하는 이들도 있다. 창조, 타락, 구속의 단

계이다. 회복은 이 세 번째 단계인 구속의 단계 안에서 포함하여 설명하려는 이유에서이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이것은 적절한 구분이라고 할 수 없다. 구속의 단계와는 분명 구별되는 또 다른 단계의 역사 구분의 명칭이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바로 회복의 단계이다. 이 단계는 구속의 역할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분명 네 번째 단계의 역사가 있음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물론 구원은 곧 심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은 서로 중첩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원과 심판은 현재적이면서도 동시에 미래적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을 구속과 구별하여 굳이 네 번째의 역사 단계를 설명하는 주제로 사용하려는 이유가 있다. 예수의 재림은 역사적 종말을 의미한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영속하는 역사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재림 이후에 시작되는 역사단계는 현재까지 있어왔던 과거의 모든 역사 기간보다도 훨씬 더 길고 영속할 수밖에 없는 시기라는 것을 말해준다.

III. 성경적 리더십과 땅 정복 명령의 변화

1. 땅 정복 명령의 일시 정지와 복권

노아에게 내려진 명령에는 땅 정복에 관한 명령이 보이지 않는다. 노아 언약 직후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에는 다섯 가지의 문화명령의 복들 중에서 세 가지만 나타난다. 즉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창9:1)’는 명령이었다. 땅을 정복한다든지, 다스리라는 명령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그 피조생물들을 ‘피 채 먹지 말라’는 단서가 붙었을 뿐이다(창9:4).

이러한 문화명령의 다섯 가지 명령어들 중에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명령어들이 사라진 이유는 땅 정복 명령의 수행권한이 일시 정지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다스리는 명령 또한 권한정지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노아언약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들은 세계의 환경이 변화되었음을 함의하고 있다. 창조 때의 세계가 아니라, 땅이 인간에게 가시덤불과 엉퀴를 낼 것이라는 예언적 말씀과 무관하지 않다(창 3:18). 피조생물들의 상호관계들이 파괴되며 땅의 모든 짐승들과 새와 동물들이 더 이상 풀만을 먹지 않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며, 생태환경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노아 때의 대홍수 사건 이후에 주어졌던 명령에는 땅 정복 명령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 제한되었다. 이러한 증거는 창세기 12장 1절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신 사건에서 나타난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시어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시었다. 이는 땅 명령의 수행권한이 다시 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세상을 향한 인간의 리더십이, 아브람을 부르신 사건을 계기로 올바른 방향으로 고쳐지도록 일으킨 하나님의 리더십이었다. 아브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땅 정복 명령의 수행권한을 재부여 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는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죄 용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부여된 본래적 속성으로서의 ‘다스림의 권한’이 복권되었음을 의미한다. 아브람 때는 아직 온전한 복권은 아니었지만, 부분적이거나 땅 정복 명령의 수행 권한이 복권되었음을 보여준다.

2. 땅 정복 명령의 절정: 대위임령

땅 정복 명령에 대한 복권은 십자가 사건에서 마무리되었다. 이는 성경에서 보여주는 세계관의 변환을 보여준다. 타락의 국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구속이라고 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십자가 사건은 단지 범죄한 인간만을 구원하려는 의도였다고 말 할 수 없다. 큰 그림에서 볼 때, 인간 구원은 수단이 되며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첫 창조의 피조세계를 모두 구원하시려는 의도였음을 보여준다. 즉 구원은 구속을 위하여 설정되었음을 의미한다. 인간의 범죄는 세상의 타락을 가져왔고, 인간의 구원은 이미 타락한 세상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도록 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음은 피조세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축이었음을 말해준다. 왜냐하면 다스림은 피조세계의 질서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 이후 인간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이다. 즉 인간은 ‘주의 다스림(主治)’을 위임받아 세상을 다스리도록 고안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인간의 세상을 향한 리더십이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리더십의 위임이었음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는 의미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리더십을 위임하기 위하여 인간 창조가 이루어졌으며, 창조 직후에 그 리더십이 위임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한다(창1:28).

땅 정복 명령은 ‘다스리라’는 명령의 선행 명령이며, 다스리기 위해서는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필요가 있다. 즉 땅에 충만할 필요에 의해서 번성하는 명령이 주어졌으며, 번성하기 위해서 생육하라는 명령이 선행되었음을 보여준다. 결국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은 ‘주치’를 위한 선행명령으로서 주어졌으며, 주치는 곧 인간에게 위임된 하나님의 리더십을 의미한다. 이러한 주 다스림이라고 하는 ‘주치명령’과 주치를 위한 선행명령인 ‘땅 정복 명령’이 노아 때의 대홍수 사건 직후에 정지되었으며, 아브람 때 와서야 비로소 복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나아가서, 십자가 사건의 구속의 의미는 ‘주 다스림의 수행 명령을 위한 땅 정복 명령’의 수행권한이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말해준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 20절까지의 기록은 이를 잘 나타내 준다.

‘예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선언하신 말씀은 그를 둘러싼 모든 제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하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신 발대식과도 같다. 십자가 사건의 부활 사역은 땅 정복 명령의 온전한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근거이며, 대위임령이라 불리는 땅 정복 명령의 선언은 아브람 때로부터 시작된 복권이 십자가 사건으로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보여준다. 즉 십자가 사건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사역은 인간의 범죄가 용서받은 것 뿐 만 아니라, 다스림을 위한 땅 정복 명령의 수행 권한이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다. 이른 바, 사면복권, 즉 일시적으로 정지된 땅 정복 명령이 십자가 사건의 사역을 통하여 완전한 회복이 시작되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면복권의 완전한 회복은 예수의 재림사건으로 완성된다. 계시록에 언급된 땅에 관한 기록은 이것을 잘 드러내준다.

3. 땅 정복 명령의 성취: 새 하늘과 새 땅

땅 정복 명령의 완전한 성취는 계시록에서 보여준다. 예수의 재림으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나타나며, 예수와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 노릇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완전한 통치의 권한이 주어짐을 의미한다(계1:6; 5:10; 20:6).¹⁰⁾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성도들의 완전한 의의 통치 대상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의 의미나 ‘왕 노릇’에 대한 의미를 드러내는 것에 열중하고, ‘왕 노릇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에 대하여는 상상력을 동원하여 추정하려 하지만, ‘누구에게 왕 노릇 하는가’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는다.

미국 트리니티 신학교(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의 신약학 교수인 오스본(Grant R. Osborne)은 계시록 주석에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자들’을 세 가지 옵션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옵션은 하늘 보좌에 있는 이십사 장로들일 경우이며(계4:4; 11:16), 두 번째 옵션은 목 베임을 당한 순교자들이며(계6:9-11; 16:6; 18:20, 24; 19:2), 세 번째 옵션은 모든 성도들일 경우를 들고 있다(눅22:30; 고전6:2). 이러한 해석 후 오스본은 조심스럽게 이들 세 가지 옵션 중에서 두 가지 즉 목 베임을 당한 순교자와 모든 성도들을 더 유력한 해석으로 꼽고 있다.¹¹⁾

다른 대부분의 학자들은 왕 노릇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왕 노릇하는 의미를 조심스럽게 심화시키거나 누가 과연 왕 노릇하는가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지만, 왕 노릇을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왕 노릇’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이해하여 그 의미를 캐내는 것에 그치기 때문이다. 천년왕국에 대한 역사적 배경에 대하여는 학자들마다 여러 주장들이 있다. 전천년설과 무천년설, 후천년설 등의 주장들을 각기 하지만, 사회문화적(Sociological) 배경을 살피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고대 헬라 신화에는 죽음으로부터 환생하는 때까지의 기간을 천년으로 이해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사후 세계에서 플라토(Plato)의 상징(figure)이 유대 문학에 유입되어 천년의 기간으로 묵시문학이 표현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¹²⁾

혹자는 예수의 재림 이후에, 이 땅에 다시 오신 예수께서 성도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간다가나 지구가 아닌 제 3의 장소로 이동한다고 믿고 있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계시록을 포함한 성경 어디에도 그것을 지지하는 근거 본문은 없다. 성경에는 동물이나 식물들이 없어진다고 표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노는다고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오히려 반대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수께서 하늘로서 내려오시며, 새 예루살렘이 땅에서 하늘로 올리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땅에 내려오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예수의 재림은 땅의 온전한 정복과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이다. 이는 주기도문에서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기도문의 내용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묘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

10) 계5:6,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계20:6,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11) Grant R. Osborne, *REVELATION*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02), 703-705.

12) Craig S. Keener, *BIBLE BACKGROUND COMMENTARY: NEW TESTAMENT*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93), 813.

이다(계21:10).

IV. 결론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위임하신 세상을 향한 리더십의 선행명령이다. 개혁주의 세계관의 네 단계에 걸친 역사변환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은 인류가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인간의 창조목적이자 본래적 속성이기도 하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리더십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존 및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 자신을 대리해서, 사람에게 위임된 것을 보여준다. 인간에게 주어진 리더십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속성에 따라, 그분의 리더십을 인간에게 위임하신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땅 정복 명령에 대한 명령 수행권한이 아브람과 노아 그리고 예수 때와 비교하여 볼 때 각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땅을 정복하라’는 최초의 명령은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지만, 그들이 범죄한 즉시 그 수행 권한은 상실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노아 때의 대홍수 직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명령들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은 있었지만, 땅을 정복하거나 그들 안에 있는 생물체를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들은 보이지 않는다. 이 명령이 다시 가동(reset)된 것은 아브람을 부르실 때 이루어졌다. 땅 정복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십자가 사역으로 그 절정을 이룬다.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지상명령(至上命令)은 세상 역사를 리드하는 하나님의 리더십을 위임받은 인간이 첫 창조 때의 인간성을 회복함으로써, 창조질서의 온전한 회복을 도모하고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을 근거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부여받으셨음을 상기시키며, 공개적으로 땅 정복 명령을 선포하신 것이다.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사역은 땅 정복 명령을 근원적으로 가능하게 하신 사건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사역의 절정을 이루고 있다. 또한 땅 정복 명령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날 것을 계시록은 예고하고 있다. 계시록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땅 정복 사건은 믿는 자들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 사건 등은 결코 하늘로 올리우는 것을 예고하지 않는다. 오히려 땅에 내려오셔서 새롭게 된 땅을 온전히 고치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나타난 몇 개의 단어들은 땅 정복에 관한 흥미를 더하여 준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표현하는 ‘새롭다’는 뜻을 가진 단어는 네오스(νεος)와 카이노스(καινος)이다. 네오스(νεος)는 전연 새로운 것을 뜻하는 단어이지만, 카이노스(καινος)라는 단어는 이미 존재하고 있던 것이 새롭게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이 본문에 나타난 ‘새롭다’라는 뜻을 표현한 단어는 네오스(νεος)가 아니라, 카이노스(καινος)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계시록에 나타난 ‘새 하늘과 새 땅’의 의미는 우주 멀리 다른 곳에 있는 제 3의 장소나 혹은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진 새로운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earth)인 이 땅에 관한 내용임을 분명히 해준다. 즉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는 땅이 아니라, 이미 있던 땅을 새롭게 바꾼다는 의미일 뿐이다.

그러므로 성경적 리더십은 ‘땅 정복 명령’을 통하여 추진되어 온 ‘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위임하신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성경적 리더십은 리더십의 위임, 일시정지, 복권 및 성취라고 하는 네

단계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회복 과정을 일정하게 보여주고 있다. 성경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주제는 하나님 나라 회복의 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이기도 하다. 즉 기독교 세계관의 네 단계 역사 인식과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다. 창조(Creation) 때의 위임, 타락(Depravity) 때의 직무정직, 구속(Redemption)을 통한 복권(復權), 그리고 회복(Restoration)을 통한 성취이다. ‘땅 정복 명령’의 주제는 기독교 세계관이 견지하는 네 단계 역사의 모든 과정에서 성경적 리더십을 이끌어주는 추진력과도 같다.

참고문헌

- 강사문(1997).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본문 창1:24-31” 『설교자를 위한 성서연구/구약 성서』. 『기독교사상』. Vol.41(11). 대한기독교서회. 179-191.
- 송인규 (2008). 『새로 쓴 기독교, 세계, 관』.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 신국원 (2005). 『니고데모의 안경』.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 _____ (2004). 『변혁과 살림의 대중문화론』.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 _____ (2002). 『신국원의 문화이야기』.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 신응철 (2006). 『기독교 문화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북코리아.
- 양승훈 (1999). 『기독교적 세계관』. 서울: 도서출판 CUP.
- 이광호 (1996).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세계문화사』.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이승구 (2003).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서울:SFC 출판부.
- 장수민 (2010). 『개혁교회 창시자 존 칼빈: 신학과 목회』. 서울: 칼비아카데미.
- 전광식 (2006). 『성경적 환경론』. 부산: 기독교사상연구소.
- 최갑중·이광복 (1996). 『천년왕국, 사실인가 상징인가』. 서울: 망애출판사
- 최인식 (2006). 『예수와 문화』.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최정만 (2006). 『월드뷰와 문화이론』. 서울: 도서출판 이레서원.
- 하도례 (1984). 『종교와 문화의 관계』.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 하성만 (2012). “개혁주의 상호문화적 리더십: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개혁논총』. Vol. 24. 서울: 개혁신학회. 301-334.
- 홍창표 (2007). 『천년왕국: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함』. 서울:합신대학원출판부.
- Aune. D. (1998). *Word Biblical Commentary: Revelation 17-22. volume 52c*.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 Berkouwer. G. (1962). *Man: The Image of God*.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고영민 역, 조직신학. 재판. 1999. 서울: 기독교문사.
- Boring. M. (1989). *Revelation Interpretation*.
- Brueggemann. W. (2002). *The Land: place as Gift, Promise and Challenge in Biblical Faith* (2nd ed.)
- Grenz. S. (1992). *The Millennial Maze: Sorting Out Evangelical Options*. Downers Grove: Inter Varsity Press.
- Hoekema. A. (1986). *Created in God's Image*.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 _____ (1989). *Saved by Grace*. Grand Rapids: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 _____ (1986). *Created in God's Image*. Grand Rapids: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 Keener. C. (1993). *The IVP Bible Background Commentary: New Testament*. Downers Grove: Inter Varsity Press.
- Osborne. G. (2002). *Revelation*. Grand Rapids: Baker Academic.
- 소기천 편 (2011). 『요한계시록: 목회자와 설교자를 위한 주석』.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Brueggeman, Walter(2002). 정진원 역(2005). 『성경이 말하는 땅: 선물·약속·도전의 장소』. 서

- 울: (사)기독교문서선교회.
- Calvin, J. *Genesis I*. 『구약성경주석 I』. 서울: 신교출판사.
- Clouse, R. (Ed.) *The Meaning of the Millennium: Four Views*. 권호덕 역 (1995). 『천년왕국』. (7판). 서울: 성광문화사.
- Granberg-Michaelson, W. *Tending The Garden*. 정충하 역 (1991). 『구속과 땅의 회복』. 서울: 도서출판 엘림.
- Habel, N. (1995). *The Land is Mine: Six Biblical Land Ideologies*. 정진원 역 (2001). 『땅의 신학: 땅에 관한 여섯 가지 이념』.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 Johnson, R. (1971). *Counter Culture and The Vision of God*. 이행식 역 (1976). 『반문화운동과 종교』. 서울: 현대사상사.
- Jordan, J. *Through New Eyes: Developing a Biblical View of the World*. 이동수·정연해 역 (2002). 『새로운 시각으로 본 성경적 세계관』. 서울: 도서출판 로고스.
- Ladd, G.. *Barnes' Notes on the New Testament Commentary*. 이남중 역 (1993). 『반즈/성경주석: 요한계시록』. 서울: 크리스천서적.
- Lee, F. (1976). *The Central Significance of Culture*. 최광석 역 (1989). 『문화의 성장 과정』. (2판).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 Michael, G. *Reading Revelation Responsibly*. 박규태 역 (2014). 『요한계시록 바르게 읽기』. 서울: 새물결플러스.
- Northouse, P. (2010). *Leadership: Theory and Practice*. (5th ed.) 김남현 역 (2011). 『리더십』. (5판). 서울: 도서출판 경문사.

개혁주의 세계관의 관점에서 보는 성경적 리더십 이해
땅 정복명령의 목적을 중심으로
논찬자 이병수 (고신대)

논찬자는 상기 논문을 장점과 보완점의 관점에서 평가한다.

장점

1. 일관성

‘땅 정복 명령’의 중요성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관점으로 연구된 경우가 찾아보기 쉽지 않다. 하지만 발표자가 구약 창세기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땅 정복의 명령’이 일관되게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은 장점이라고 하겠다. 발표자는 그것을 신·구약 성경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다루는데 창세기1:28의 ‘땅 정복 명령’과 창세기12:1-3절의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마 28:18-20절의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12, 20절에 나타나는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온 땅을 정복하시는 만왕의 왕의 모습을 통해 ‘땅 정복명령’을 일관성 있게 증명한 점이다. 이러한 일관성 있는 해석을 통해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시도하는데 즉 개혁주의 신앙에서 바라보는 성경적 세계관에 대한 이해를 ‘땅 정복 명령’의 관점에서 다룸으로써, 리더십이라는 일반적 주제와 성경적이라고 하는 신앙의 주제를 하나로 통합하여 신앙과 학문의 일치를 시도한 점이라고 하겠다.

2. 리더십의 성경적 기초 발견

‘땅 정복 명령’의 목적으로 간주되는 주 다스리심(主治)이라고 하는 주제를 성경적 세계관의 관점에서 조명함으로써, 성경적 리더십을 보다 명료하게 이해하고자 시도한 점이다. 따라서 발표자는 리더십에 대한 일반연구와 성경적 연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를 극복하고 나아가 구약과 신약의 일관된 주제인 ‘땅 정복 명령’이 리더십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3. 중요성과 공헌

상기 논문의 중요성과 공헌은 ‘땅 정복의 명령’의 관점에서 성경적 리더십의 이해를 도모하고, 리더십의 시원, 성경적 세계관 이해 등의 개념을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성경적 리더십을 강조함으로써 현대 주요 리더십의 이론적 한계를 극복한 점이라고 하겠다.

보완점

1. 발표자가 ‘하나님의 형상’ 혹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의 의미를 ‘관계’라는 측면에서 설명한 것은 매우 정확한 신학적 주석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본 논문의 중요성에서 가장 주요한 주제가 되기 때문에 발표자는 다양한 신학자들을 언급하였는데 예를 들면 고대 교부들(이레니우스, 오리겐, 어거스틴)로부터 중세의 아퀴나스 그리고 개혁주가 루터와 칼빈,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자들(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바빙크, 별카우어, 루이스 벨코프, 안토니 후크마)을 다루었던 점은 깊은 연구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대면” 및 “관계”로 설명한 대표적 학자인 바르트(Karl Barth, 1886-1968)의 언급이 없었던 것이 아쉬웠다. .